

티백 녹차 제조과정



효소 작용을 억제시키는 살청과정.



컨베이어 벨트로 다음 단계로 옮겨진다.



차잎의 모양을 만드는 유념.



건조된 차잎을 크기별로 선별한다.



티백에 담겨 제품으로 포장된다.

티백 녹차, 이렇게 만들어요

사무실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티백녹차.

언제 어디서나 차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티백녹차는 '저급 녹차'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차인구가 수백만을 헤아린다는 요즘에도 티백녹차는 우리나라 녹차 소비량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짙은맛을 즐기거나 어린 차잎을 사용한 고급 티백녹차가 등장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로 창사 10주년을 맞는 보성제다(대표 서찬식)의 티백녹차 생산 공장을 찾아 녹차 티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

저급 취급에도 국내녹차 소비량 70~80% 차지

보성제다 10주년 맞아 짙은 맛 줄인 고급차 생산

펴봤다. 녹차공장 견학 안내는 보성제다 서찬권 과장이 맡았다.

티백으로 사용되는 차잎은 손으로 수확하는 고급 차와 달리 거의 대부분 기계로 수확한다. 주로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기간에 채취한 차잎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고급 티백녹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봄에 따온 차를 티백차로 티백녹차를 만들기도 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차잎 수확량이 증가해 주말에도 차잎을 채취하고 공장을 가동할 정도라고 한다.

수확된 차잎은 공장으로 운반돼 자동화 기계에 들어가게 된다. 차잎이 투입되어 티백에 넣기 전 단계까지 모두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티백녹차 제조기는 거의 대부분이

쉽게 마신 티백차 복잡하게 만드네

일본제품. 게다가 각 단계별 기기만도 몇 억을 호가한다니, 하루빨리 우리나라 고유의 녹차 제조기기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일정 분량씩 기계에 투입되는 차잎은 제일 먼저 ▲살청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청이

란 증기나 열을 가해 차잎의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 폴리페놀의 산화를 막는 과정이다. 보통의 살청기는 1시간에 200kg 정도의 생엽(生葉)을 처리할 수 있으며, 뜨거운 증기로 차잎을 찌거나 열기를 가한다.

살청 과정을 통해 습기와 열기를 머금은 차잎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옮겨져 수분을 건조시키게 된다. 열과 바람을 가해 살청 시 차잎의 겉면에 생성된 수분을 날려 보냄으로써 차잎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다.

적당히 건조된 차잎은 역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유념기로 옮겨진다.

▲유념은 차잎의 표면을 마찰시켜 상처를 만들으로써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차의 성분이 빨리 우려나게 하는 것이다. 차잎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한데, 차잎

을 따는 시기와 차잎의 상태에 따라 유념 시간이 달라진다. 보통 봄에 수확한 차잎은 2~3분 정도, 가을에 수확한 차잎은 7분 정도 유념하게 된다.

유념기에서 모양이 만들어진 차잎은 건조기에서 수분을 말려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차잎의 수분이 3~4%정도일 때 부패나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 마지막 단계인 건조기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잎의 상태가 된다. 이 ▲차잎들은 선별기에서 미세한 가루나 염자용, 티백용 등으로 나뉘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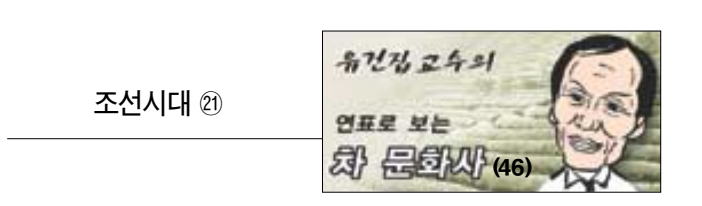
티백용으로 분류된 차잎은 ▲마지막으로 포장실로 옮겨진다. 포장 역시 자동화로 이뤄지는데, 적당 분량씩 여과지에 담긴 후 종이 재질의 개별 포장지로 포장한 후 상품 상자에 담겨야만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차는 전국의 슈퍼마켓과 할인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창상에 오르게 된다.

보성제다(061-853-411)를 비롯해 화계농협(055-883-4235), 한밭제다(055-884-7760) 등의 티백공장은 사전에 예약하면 일반인들도 무료로 견학이 가능하다. 녹차공장 견학을 통해 무심코 마시는 티백 하나를 만드는 데도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고 나면 한 잔의 차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여수령 기자



기계로 수확한 차잎은 자동화 기계를 통해 티백제품으로 만들어진다.



다산, 아암해장 등이 19세기 차문화 꽃피워 '십노도상계도권' 서 고려, 조선 행다법 표현

18세기 말의 우리 차 증흥의 주역들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다. 천주교의 박해운동은 어쩌면 우리 차의 발전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유배되어 강진으로 가지 않았다면 찬란했던 19세기 초의 우리 차문화는 양상을 달리했을 수도 있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되어 아암해장을 만나고 그로 인해 초의를 가르치게 되고, 이어서 유산·추사·해거도인들과 초의가 연을 가지게 된 것이다.

15세기 말에 그렸던 '십노도상계도권'이 이때 단원에 의해 이모본(移模本)으로 남아 있어 고려 말과 조선의 선비차 생활과 다모들의 행다에 법이나 동작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차가 무역의 중요 품목으로 전대(前代) 같은 깊은 정신적 면을 소홀해지지는 못한 감을 준다. 일본도 차가 상품의 의미가 강해져서 행사 위주로 기울어진다.

① 김정희(1786~1856): 호를 완당, 추사, 노과 등으로 썼다. 중국을 다니며 문인들의 다품을 섭렵했고 초의와 만나면서 우리 차도 즐겼다.

② 초의의순(1786~1866): 대둔사 13대 대종사. 다산을 인연으로 중앙 무대와 교류하면서 우리 차를 중흥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다산전> <동다송>을 썼고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다.

③ 이규경(1788~?): 이덕무의 손자로 <도다변증설(茶茶辯證說)>을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었다.

④ 김명희(1788~?): 추사의 동생으로 서예가다. 차를 즐겼다.

⑤ 1499년 그려진 '십노도상계(十老圖像帖)'를 단원이 이모본으로 만든 그림이다. 그 속에 문인들의 차 생활과 다모(茶母)가 등장한다.

⑥ 홍현주(1791~?): 어머니 영수합 서씨의 영향으로 일가가 모두 차인이었다.

⑦ 철선해집(1791~1858): 교와선에 밝고 문집에 <우중초의화상> 등 다사가 전한다.

⑧ 홍현주(1793~1865): 정조의 사위로 해거도인(海居道人)이라 호를 했다. 초의에게 청해 <동다송>을 짓게 하고 자신도 다시 여러 편을 남겼다.

⑨ 숙선옹주(1793~1836):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해거에게 하간한 차인으로 그때 다모를 데리고 왔다. 다시를 남겼다.

⑩ 조소관은 사신을 맞는 영접도감으로 인사차를 잘 안마시니 다른 좋은 차를 쓰겠다고 계(啓)를 올렸다.

⑪ 오건(吳健)이 쓴 책으로 형남차(嶺南茶)와 나개차(羅芥茶) 등 다시를 기록했다.

⑫ 성승조가 쓴 책으로 남쪽지방 사람들의 차 마시는 일에 관해 썼다.

⑬ 오건의 책으로 화차(花茶)에 관해 기록했다.

⑭ 사전추성(1734~1809): 일본의 국학자이며 문인으로 <청풍쇄언(淸風瑣言)>을 펴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한국	중국	일본
1785 천주교 박해 1786 김정희(金正喜) 출생 ① 초의의순(神衣意詢) 출생 ② 1788 이규경(李圭景) 출생 ③ 김명희(金命喜) 출생 ④ 1790 십노도상계속 이모본 ⑤ 1791 홍원주(洪源周) 출생 ⑥ 다시(茶詩) 송사행다제(送使行茶禮) <경도잡지(京師雜記)> 철선해집(鐵船海集) 출생 ⑦ 1793 홍현주 출생 ⑧ 숙선옹주(淑善翁主) 출생 ⑨ 1799 조소관(趙錫貫)의 계(啓) ⑩	1785 '중국황후' 호가 차 유반(뉴욕) 1787 <도계객어(桃溪客語)> ⑪ 1788 <위세식략(衛世識略)> ⑫ ⑬ <형양승필(峴陽叢書)> ⑭	⑮ 사전추성(上田秋成) ⑯

조선 '웅천 차사발'展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23일까지

500여년전 조선시대 경남 남해 웅천에서 빛어낸 '웅천 차사발' 50여 점의 한자리에 모인다.

조선웅천차사발특별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원, 청주불교방송사장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간인 10월 1~23일까지 청주한국공예관에서 '조선 웅천 차사발 특별전'을 개최한다.

'땅으로 빛은 하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국내 차인 6명이 소장하고 있는 웅천 차사발 52점이 선보인다. 흔히 '이도다완'으로 불리는 웅천차사발은 웅천지역에서 생산돼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로 여겨질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원 스님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웅천차사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관련 도록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관 '수레질 차그릇'展

10월 5~12일 예송갤러리



도예가 박수관의 '수레질 차그릇전'이 10월 5~12일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열린다. 유약을 입히지 않고 불꽃과 불티(나뭇재)가 자유롭게 기물에 닿도록 구워지는 박시 특유의 기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불꽃이 흐르는 속도와 온도, 크기에 따라 도자기 표면에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문예비평가 조명제씨는 "박시의 작품은 토기 제작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도전의 한 산물이다"고 평했다. (053)426-1515

瑞榮普洱

茶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년보이 · 진년어룡 · 철관음 · 오룡차 · 대홍포 · 화차 · 인삼우롱

외 40여가지의 차

보이차 전문점, 갈문수, 가 · 차 · 보이 · 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영보이, 개명기념 기념이벤트 기념 2만 원 한정판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茶와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어낸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에는 상·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